

주제회의  
주거권

## 토 론 문

윤종철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4월 문을 연 이후 바로 광주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 분들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시보호사업도 2021년 10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실인원 114명, 연인원 1,03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1년 7월 노숙인 등 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은 광주 노숙인복지의 한 획을 긋는 그런 해였다고 자평한다. 2022년에는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노숙 시민에게 따뜻한 집을!!”이라는 의제를 신청하여 현재 2동의 빌라를 임대하여 자립 의지가 있는 노숙 시민에게 3개월 정도 무료 임대를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거리노숙인자활 특화사업을 시작하여 실인원 59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시락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이 긴급 지원으로 입주하여 사시는 곳이 쪽방, 달방이다.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분들은 원룸이지만 대다수 분들이 모텔촌 쪽방에 기거하고 있다. 자활사업을 하면서 만난 노숙인 분들이 쪽방 거주민들이다. 쪽방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의제로 다시 제안하였다. 사업 제안과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동구청 임택 청장님을 뵈었을 때 “항상 마음의 빛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 생각한다.

김용희 처장님의 첫 번째 제안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내 비주택 거주지 지원 상담소 개소와 광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주다시서기센터의 기능 확충을 제안한다. 정확한 현황 파악, 치유 프로그램, 자활프로그램 연계, 각종 복지 자원 연결 및 제공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광주시의 종합적 주거전략, 포괄적인 케어플랜에 근거한 개입, 지속적 주거 및 생활 코디네이터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논의된 바도 없던 광주 쪽방 거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이는 한 센터만의 사업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의 협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적·물적 행정 지원을 통해 노숙인 등 시민들이 광주의 돌봄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한다.

이동현 활동가님의 ‘쪽방촌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제안’은 서울을 중심으로 쪽방촌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셨고 정부나 지자체의 매입이나 임대 등 적극적인 사업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쪽방 주민들에 대한 배제보다는 포용하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LH 토지구택연구원 김주진 연구위원의 발표 역시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우리 광주 쪽방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쪽방촌이 도심의 섬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공동체 의식을 간직한 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시민들은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사건들 역시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광주는 수년 전 쪽방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쪽방 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서 다행이다. 고립된 섬이 아닌 마을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